

“기도의 지팡이 성령의 전신갑주”

News Letter

발행인 | 오정현
기획 | 특새 TFT
발행처 | 사랑의교회
www.sarang.org

S A R A N G C H U R C H

TODAY'S PRAYER



생명과 치유를 위한 부르짖음

01

특새를 통하여 온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가랑비 총만과 소낙비 총만이 가득하게 하사, 무르익은 제자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삶의 전부를 드러 헌신하게 하옵소서.

02

사랑의교회 모든 젊은이들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그들의 평생이 물 댄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과 같게 하옵소서.

03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분출하는 사랑의교회가 되게 하사, 이 세상의 모든 황폐하여 무너진 곳들을 다시 세우고 수축하는 제자훈련 선교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당신에게는
기도가 운전대입니까,
아니면
스페어타이어입니까?

- 코리 텐 북

특새출석표 >> 기도명언의 절취선을 오려 출석부에 붙여주십시오.

성령님이 하시는 세 가지 일

(구원현실 안으로 입주-구주 예수님과 사침-온갖 열매맺음)



photo by SRC

구속경륜과 관련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자의 사역을 담당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설계를 담당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시공을 담당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 설계도대로 시공된 건물에 우리를 입주시키는 사역을 담당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약동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시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닮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접촉하여 변화시키시는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 못한다. 서로 다르지만 한 몸으로 교회에 유입되는 시기가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성령 세례 후에 성령이 우리를 채우셔서 예수님의 영을 담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가랑비 총만이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계신 줄 믿는다. 두 번째, 소낙비 총만이다. 스스로도 체감할 수 있고 옆 사람도 알게 되는 총만이다. 끊지 못하는 죄를 갑자기

끊어버리는 능력이 임한다. 고난 중에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친다.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깊이 파고 들어온다. 방언, 예언, 신유 등의 기적 은사를 체험하고, 복음 전파의 담력과 효력을 얻어 담대히 전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사탄과 악령들을 제압하는 능력을 맛보고 기적적인 기도 응답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성령체험을 받을 수 있을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가장 적절한 답이 될 수 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생명의 수액이 올라온다. 수액이 올라오면 반드시 심령 속에 변화가 올라온다. 예수의 생명의 수액이 올라오면,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 이 수액이 밖으로 나온 것이 열매다. 성령 총만의 비결은 한마디로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주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 거주한다 함은 주님과 사귀는 뜻이다. 교제에는 5단계가 있다. 인사 교제, 비유하자면 KTX 타고 가다가 아는체 하는 정도로 주님을 아는 것이다. 사건 교제, 데이트 할 때처럼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조금씩 말하는 것이다. 의견 교제,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주님께 말한다. 느낌 교제, 자신의 느낌을 주님께 말한다. 마지막으로 전부 교제는 자신의 전부를 놓고 주님과 교제한다.

성령 총만의 결과는 어떻게 표출되는가? 제자다운 제자가 된다. 기도 응답을 받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 예수님의 총만 기쁨이 내 안에서 넘친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기도응답 받고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한다.

2017 대각성전도집회(새생명축제)

1. 일정 및 주제

- 일시: 2017년 11월 12일(주일) 오후 7시, 13일(월)~15일(수) 오전 10시30분, 오후 7시30분
- 주제: 교회여, 생명의 문을 활짝 열라!

2. 강사 및 게스트(간증자)

주후 2017년 11월 12일(주일)~15일(수) / 사랑의교회 본당

	주일(11/12)	월(11/13)	화(11/14)	수(11/15)
오전 10시 30분	-	박성규 목사	최홍준 목사	강명옥 전도사
오후 7시 30분 (주일 7시)	박성규 목사	최홍준 목사	손인석 목사	오정현 담임목사

강사



최홍준 목사
(국제목회사역원 원장)



손인석 목사
(그날까지선교연합국제대표)



박성규 목사
(부전교회)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강명옥 전도사
(사랑의교회)

찬양간증



양준모외무지컬(영웅)팀



유엔엘비스



문재숙(가야금)



김규식(첼로)



나우엔



박오세



강석우



이흥주



배다혜

1. 성령충만케 하시는 특새의 은혜가 생명충만의 새생명축제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 기도의 용량, 믿음의 용량, 전도의 용량이 확장되어, 태신자들을 안아주시는 본당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3. 태신자들의 삶 가운데, 주의 위엄, 주의 말씀, 주의 구원이 임하는 새생명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 <http://newlife.sarang.org/contents/sub01.asp>

읽다가 저절로 은혜받는, 특새게시판

“다락방 모임 하면서 성령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 답답했는데, 오늘 권성수 목사님의 특새 설교에서 새로운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가람비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소낙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사모합니다.” (정필원)

“파주를 출발해서 일산을 통해 강변북로를 달리는 은혜 45호는 오늘도 성령파이를 받고 사랑의교회 영가족이 성령 체험과 함께 기도의 용사가 됩니다. 은혜 45호 안에서 성령파이를 받고 느껴지는 것은 예전에 감동 있게 보았던 ‘은하철도 999’. 그래서 이 노래를 이렇게 불러봅니다. “버스가 어둠을 헤치고 강변북로 달리면/ 사랑의교회엔 성령이 쏟아지네/ 은혜 찾는 영가족의 눈동자는 불타오르고/ 성령 충만 우리들 가슴엔 하나님의 은혜 넘치네/ 힘차게 찬양하라 특별새벽부흥회/ 힘차게 기도하라 특별새벽부흥회/ 특별새벽부흥회.” 새벽마다 빵과 파이, 음료를 제공해 주신 권사님, 감사합니다.” (조재민)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SONG(Sarang Orioles of Next Generation)들이 이곳을 다니며 특새를 통해 찬양과 기도로 이 땅에 성령의 소낙비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교회는 유럽 재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밀 병기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희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셔서 유럽 땅까지 새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백승준)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한 번도 당당해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 분의 자식이라며 떳떳하게 살아본 적이 없다. 멍통인 가슴이 저려온다. 눈물이 흐른다. 아빠! 사랑해요. 제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아빠! 저 아들로서 열심히 살게요. 떳떳하게 살게요. 아빠의 아들로서의 저를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찾아올게요.” (윤문구)



photo by SRC

특새하는 다음세대, 희망있다 한국교회

season2

오정현 담임목사가 추천하는

기도 고전, 기도 명저



주기도문

제임스 패커 / (아바서원)

두말이 필요없는 복음주의 신학의 거장에게 배우는 주기도문입니다. 이미 주일설교와 훈련과정 또는 양육과정을 통해 배웠듯이 주기도문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기도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가르쳐줄 뿐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색해도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기도해야 하는 강력한 확신과 근거를 제공합니다. 어느덧 기도를 고역과 부담으로 여기고, 정확한 초점을 놓친 채 기도하는 흉내만 내고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라 권합니다. 요즘 기도를 명상 또는 자기확신용 주문 (mantra) 정도로 오용하는 혼란 속에서, 눈앞의 현실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바꾸는 통로가 되는 주기도를 이 책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생명과 치유를 경험한 영가족들의 심정 나눔

20여 년간의 호스피스 봉사에도 불구하고 나눌까를 진지하게 고민한다. 그때마다 환우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었기에 호스피스

11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언어장애와 운동장애로 투병 중이신 L환자가 처음부터 우리의 심방을 반긴 건 아니었다. 마음의 문을 닫은 환자와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인 심방을 하였다. 처음으로 예배 후 기도를 마쳤을 때 큰 소리로 "아멘!"하신 그날 어찌나 기쁘던지 눈물이 나왔다. 지금 이 환자는 예배를 기다리며 우리를 환대하신다. 읊기서 말씀을 나눌 때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심을 알 수 있었다. 남편의 변화를 지켜본 환자 부인도 기회가 되면 호스피스 봉사를 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을 하신다.

호스피스 사역이 말기 암환자들의 남아 있는 마지막 시간들을 존엄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섬김이라고 한다면, 전인치유 사역은 암과 같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편에서 서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 평안과 소망을 갖게 하고, 영적, 육적 질병에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 도와주는 섬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번 11월 기도로 품은 태신자들이 새생명축제에서 주님을 만나 새생명을 얻는 기쁨과 성도들이 영적 대각성을 통해 호스피스·전인치유 사역 봉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한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하고 환우를 방문할 때면 언제나 어떤 말씀 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울고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스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



-홍양표 안수집사(호스피스·전인치유 봉사팀장)

보훈 병원에 입원해 계신 A권사님을 완전히 회복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 풀게 된다. 85세의 A권사님은 입과신 압

예수님의 생수

심방하고 돌아올 때면 피곤했던 나의 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감에 부

통하게 키우셨고 한다. 여전도회 회장으로 매일 100장의 전도지를 들고 나가셨다는 일화가 유명한 이 권사님은, 투병 중에도 도우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에 여념이 없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신다. 심방할 때마다 "빨리 예배를 드려야제"하시며 자세를 바로 고치고 찬송과 아멘을 큰소리로 외치시는 모습에 나도 힘이 나고 나의 젊은 시절의 고향 작은 교회를 떠올린다. 비록 짧지만 이 시간이 얼마나 성령충만 은혜 가득한 시간인지 모른다. 지금은 많이 회복 되셔서 휠체어를 타고 산책도 나가신다. 옛날처럼 활발히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겠지만 혼자 거동이 힘들고 휠체어만 의지하고 지내신다. 힘든 중에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 기도하고 큰소리로 찬양하며 은혜를 사모하시는 A권사님의 심방이 행복한 이유다.

-마성희 권사(호스피스봉사)



평양에서 피난 오셔서 5남매를 키우시

어머니의 경주

느라 고생을 하신 친정어머니가 예수님을 한 후였습니다. 지난날의 고생과 아픔들을 의 전부로 사셨습니다. 90세의 연세에도 뺏한 새 돈을 바꿔 현

기독교 방송 청취와 전도지 돌리는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머니가 2017년 5월27일에 레미콘트럭에 치이는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한 달의 치료 끝에 피부괴사로 두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고, 소염제와 진통제후유증으로 위에 천공이 생겨 전신마취 여섯 번과 대수술 여섯 번을 받으셨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에서도 어머니가 보여주신 모습은 평안과 기쁨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아픔을 이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작고 순수했던 나의 어머니는, 분명 구원을 확신하고 주님만을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자식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셨던 어머니는 결국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희 5남매가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기를 바라시던 어머니의 마지막 믿음의 경주였습니다.

- 김순애 집사(의왕다락방)



닫혔던 두꺼비를 엽니다:

강단초대자들이 받은 은혜

가을 특별새벽부흥회 가운데 낮아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빛도 없는 질그릇이지만 주님은 찾아와 주셨고, 나의 경험, 지식, 학력,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고 새힘을 얻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중압감들을 비움, 낮아짐의 비약으로 펼쳐내겠습니다. 절대절망의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것을 보고, 말하기 원하는 것을 말하는 삶을 실천하는 순장이 되었습니다.

- 정성기 집사(목양팀 도곡2동B2 다락방)

오늘도 특새 말씀을 들으며 "나는 할 수 없어요"라고 불평했던 나의 입술을 "나는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나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에 있는 저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 안희경 집사(목양3팀 방배A7 다락방)

큰아이의 두 번의 수능실패에 무겁고 지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며 특새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지쳐있던 저를 떨기나무 잎예배자로 부르셔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킴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으며 이제는 나의 초점을 내 문제가 아닌 그 문제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 맞추기를 결단합니다.

- 최은선 집사(목양6팀 강서7 다락방)

공지

1. 기도 주제

오늘의 기도 주제는 “예수 생명으로 넘쳐흐르게 하옵소서!”입니다.

2. 강단 초대

오늘: 대학 · 청년부 · 기도온 리더 /
내일: 주일학교교사, 주일학교훈련생

3. 감사 소개

오늘: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에스겔 47:6~12 “예수 생명 흘러야” /
내일: 이정훈 교수 (울산대 법학과)

4. “생명과 치유” 중보기도 카드 활용 안내

특새 기간 응답 받길 원하시는 기도제목을 적어서 카드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푸른 감람나무의 은혜가 넘치도록 교역자들이 목자의 심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5.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육군훈련소 복음의 물맷돌 집회’

육군 장병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전신갑옷과 영적 기백으로 무장될 이번 집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11/26(주일) 오후 6시30분, 육군 논산 훈련소 (서틀은행: 당일 오후 2시 30분 교회 출발 예정)

- 신청방법: 참석하시는 분들은 미리 교구 순장 및 교역자에게 신청 및 문의바랍니다.

※ 사전에 등록한 분들에게는 군인 인식표(군번과 군번줄)를 기념품으로 드립니다.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병영체험장이 준비됩니다.

6. 낱말 퍼즐 시상

어제(8일) 오전까지 올려주신 23명의 성도들께 특새 자수가 새겨진 ‘무릎 담요’를 선물로 드립니다. “생명과 치유”의 은혜 게시판 [253번]에 당첨자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남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7. “생명과 치유”의 은혜 게시판 활용

오병이어 역사처럼, 받은 은혜 나눌수록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은혜를 게시판에 꼭 나눠주세요!

“받은 은혜 나눌수록, 푸른 감람나무 자라난다!”

읽다가 저절로 은혜받는, 특새게시판

“다음 주에 대각성전도집회가 있어서 기도에 집중하며 깨어 있도록 인도하신 특새가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올해는 저희 삼남매도 태신자를 정하고 친구초청잔치에 친구들을 전도하느라 마음이 부풀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신 영광의 주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주님과 함께 기뻐 할 친구초청잔치, 다니엘중등부 순어겐, 대각성전도집회를 가슴 벅찬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김민정)

“어제 (특새 둘째 날) 낮에 딸이 둘째를 안전하게 순산하고 건강한 새 생명을 안겨줬습니다. 특새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특새 요람>에 포근함을 누리신 신생아가 기쁨을 충만케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삶에서 드러내는 아이로 잘 자라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김차순)

“저희 어머니께서 백화점에서 근무하시는 환경 때문에 주일에 참석을 못하시는데 가끔 주일에 휴무가 생기실 때는 늘 어김없이 교회를 찾으십니다. “교회 입구에서 찬양소리만 들려도 눈물이 너무 흐른다”는 어머니처럼, 저도 사랑의교회 분당 입구만 들어서면 하염없이 눈물샘을 자극하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합니다.”

(정종현)

“여기는 미국 북가주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도 빠짐 없이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고, 인터넷 특새는 올해 두 번째를 맞습니다. 어린 딸이 며칠째 고열에 시달리는데 미국 의료 특성상 병원 예약은 한참 후에 잡혀서 맘을 졸이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아이가 씻은 듯 열이 내렸답니다. “엄마, 어떻게 이렇게 됐지?” 묻는 딸에게, 기쁨으로 “기도해서 그렇지!” 대답해주며, 나의 두려움, 세세한 것까지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 또 감사합니다.”

(김지현)



photo by SRC

내가 새벽을 깨우리рода (용인교구 특새 수송차량 풍경)



특새의 은혜찬양을
QR 코드로 들어보세요.



시선



오 귀한 주 이름



나는 믿네

